

“관객 호응 힘입어 2편 개봉... 3편까지 시리즈물 기대”

★스타인터뷰

영화 ‘탐정: 리턴즈’

권상우

“‘탐정’이잖아요. 탐정사무소는 이번 편에서 차립니다. ‘탐정:더 비기닝’이 인트로였고, ‘탐정:리턴즈’(탐정2)가 진정한 본편이라는 거죠.” 배우 권상우(41)가 다시 한번 ‘탐정’ 시리즈로 관객을 만난다. 기존에 호응을 맞췄던 성동일에게 신규 파트너 이광수까지 가세해 더 큰 웃음을 관객에게 선물한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탐정:리턴즈’(감독 이언희)는 설록 덕후 만화방 주인공 강대만(권상우)과 레전드 형사 노태수(성동일)가 탐정사무소를 개업, 전직 사이버수사대 에이스 여치(이광수)를 영입해 의뢰받은 사건을 파헤치는 코믹범죄추리극이다. 2015년 추석 극장가에 입소문만으로 262만 관객을 동원한 ‘탐정:더 비기닝’의 스코어를 깰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최근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배우 권상우를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이하 일문일답.

- ‘탐정:리턴즈’가 곧 개봉한다. 시리즈로 돌아온 기분이 어떤가.

“시사회 때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봤다. ‘탐정:더 비기닝’ 개봉 때 상영관 수도 적었고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어렵게 스코어를 달성했다. 그런데 이렇게 후속작을 내놓을 수 있어 뿌듯하고, 일단 스타트지점이 그때와는 다르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 1편보다는 스코어가 좋아서 3편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쭉쭉 이어가는 시리즈물이 되기를 바란다.”

- 드라마 ‘추리의 여왕’에 이어 ‘탐정’까지 후속편이 제작됐다. 추리극을 원래 좋아하는가.

“솔직히 추리물이라는 장르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추리의 여왕’ 같은 경우는 춘데레같은 캐릭터의 성격과 최강희 씨와 티격태격하는 지점이 재미있어서 출연했고, ‘탐정’은 주인공의 별볼 일없는 사생활이 흥미로워서 출연했다. 사건을 파헤치는 것보다 대만의 설정들, 일상 속 재미를 끄집어내는 것이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다. 재미있게 찍었기 때문에 캐릭터와 혼연일체되어 지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화면에 보여질 수 있던 것 같다. 실제 강대만과는 100% 닮지는 않았지

만, 그런(강대만스러운)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다.”

- 성동일과는 두번째 호흡이었고, 이광수까지 합류했다. 함께한 소감은.

“시리즈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서이다. 성동일 선배는 연기할 때 진중하시고 또 재미있다. 배태랑 선배와 함께하는 재미가 있었고, 광수는 드라마, 예능, 영화까지 섭렵할 정도로



탐정2, 베테랑 선배·끼 많은 후배와 함께해 그동안 스크린 활동 뜸해... 이번엔 영화로 승부

역시나 끼가 많은 친구라는 걸 새삼 느꼈다. 동일 선배를 통해 광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처음 봤을 때부터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작품에 스며드는 모습에 감탄했다.”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인생작은 영화가 더 많다. ‘말죽거리 잔혹사’ ‘동갑내기 과외하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차기작 ‘두 번 할까요?’와 ‘귀수’가 기다리고 있다. ‘두 번 할까요?’는 ‘탐정’ 시리즈와는 또 다른 결의

코미디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그리고 ‘귀수’는 ‘신의 한수’의 프리퀀로 오랜만에 액션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해외 활동이랑 드라마 촬영으로 스크린 활동은 많이 못했다. 2018년과 2019년은 영화를 승부를 보려 한다.”

-작품 고르는 기준은.

“일단, 대본을 봤을 때 장르를 떠나서 술술 잘 읽히는 게 좋다. 하지만, 아무리 잘 읽혀도 능력 밖이라고 생각되면 고사하는 편이다. 딱

봐도 내가 연기하는 것보다 다른 배우가 어울릴 것 같으면 내 것이 아닌 거다. 내가 참여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동시에 흥행성적도 좋은 작품을 만나게 제일이다.

그래서 ‘탐정’ 시리즈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만화방을 운영하는 육아대디 강대만이 다른 배우들은 꺼려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강대만이 나오니까 캐릭터가 완성됐고 잘 어울려졌다. 만족스럽다. 그리고 나의 또 다른 모습은 다른 영화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다.”

-40대 권상우에게 ‘변화’와 ‘나이든다는

것’은 뭘까.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는.

“아직도 ‘권상우’하면 ‘천국의 계단’을 많이 이야기하셔.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지금의 권상우는 알아요. ‘천국의 계단’은 모른다. 현재 내가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돌아오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을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 되고 싶다. 배우로서는 멜로, 코미디, 액션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유연한 배우가 되고 싶다. 스스로도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쨌든 ‘말죽거리 잔혹사’를 비롯해서 대표작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회자될 수 있는 영화에 출연한 것만으로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CJ엔터테인먼트·손진영 기자 son@



관부 재판 실화 다룬 ‘히스토리’ 27일 개봉 확정 ‘식샤를합시다3’ 집나간 입맛·재미 잡는다

日정부 맞서 싸운 할머니들의 이야기 연기파 배우 대거 출연... 기대감 높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김희애, 김해숙, 예수정, 문숙, 이용녀, 김선영, 김준환, 이유영이 그리는 관부 재판 실화 ‘히스토리’가 오는 6월 27일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 ‘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

까지 6년 동안 오직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로, 당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을 만큼 의미미한 결과를 이뤄냈음에도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관부 재판’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6년에 걸쳐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재판을 이끌어간 사람들의 치열했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

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기대를 높인다. 또한 재판 과정을 목격한 울림으로 전하는 배우들의 강렬한 열연과 마음 한켠을 뜨겁게 적시는 스토리는 전 세대 관객의 뜨거운 공감 열풍을 이끌어 올여름 극장가를 의미 있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러한 가운데 ‘히스토리’는 관객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높은 관심을 입증하듯 런칭 포스터와 용기 포스터, 메인 예고편과 관부재판 코멘터리 영상 등이 공개될 때마다 열렬한 반응을 모으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예고편만 봐도 가슴 아픈 스토리에 진심 어린 공감을 표하며 영화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모니터 시사회를 통해 관객의 압도적인 호평을 확인한 데 이어 예비 관객들의 기대평 속에 벌써부터 뜨거운 공감 열풍을 예고하고 있는 ‘히스토리’는 2018년 대한민국에 강렬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정원 기자 sjw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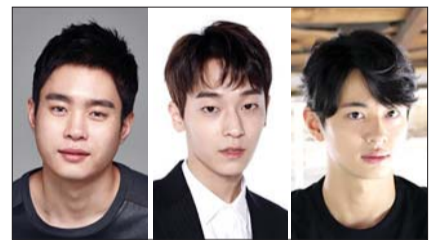
윤두준·백진희 등과 호흡 맞춰

오는 7월 ‘식샤를 합시다’가 시즌3로 돌아온다. 배우 김동영, 병헌, 서벽준이 ‘식샤를 합시다3: 비긴즈’에서 유쾌한 절친 3인방으로 출격한다.

tvN 새 월화드라마 ‘식샤를 합시다3: 비긴즈’(극본 임수미/연출 최규식)는 서른 넷, 슬럼프에 빠진 구대영(윤두준)이 이지우(백진희)와 재회하면서 스무살 시절의 음식과 추억을 공유하며 상처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지난 시즌 1,2에 이어 새롭게 돌아오는 ‘식샤를 합시다3: 비긴즈’는 윤두준과 백진희, 그리고 이지우와 안우연이 출연을 확정 지으며 울림, 안방극장 최고의 이슈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김동영, 병헌, 서벽준은 극중 스무살 구대영의 대학 시절 절친 3인방으로 등장, 각자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리얼한 연기로 극의 활기를 담당할 예정이다.

먼저 영화 ‘독전’의 농아남매 동영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김동영은 친구들과 사이에선 상남자이지만 유독 여자 앞에만 가면 말이 없어지는 소심한 성격의 모테솔로 ‘배병삼’으로 변신한다. 그동안 드라마 ‘리턴’, ‘작은 신의 아이들’과 영화



왼쪽부터 김동영, 병헌, 서벽준.
/호주엔터테인먼트·클로버컴퍼니·와이트리

‘밀정’ 등 굵직한 작품들에서 활약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그가 이번 작품을 통해 또다시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병헌이 맡은 ‘김진석’은 자기애가 증만한 자백 캐릭터. 병삼과 달리 여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접하지만 그도 역시 연애 경험이 없는 모테솔로다. 드라마 ‘판따라’, ‘실종노아르M’과 연극 ‘여도’, ‘S 다이어리’,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연기력을 키워오고 있는 병헌이 진석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낼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독립 영화와 각종 광고를 통해 그가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신인 배우 서벽준은 ‘이성주’로 분해 연상 킬러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 모범생 비주열에 반전 있는 캐릭터를 표현해낼 그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진다.

신원선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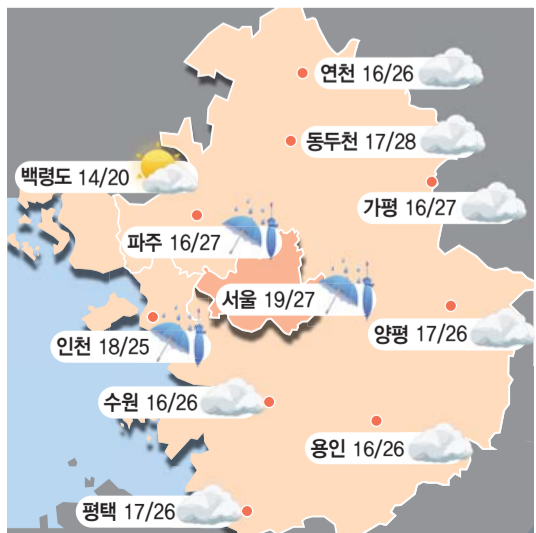
해돋이 / 05:11 | 해질 / 19:50

6월 5일
음력 : 4월 22일

수도권 날씨

27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